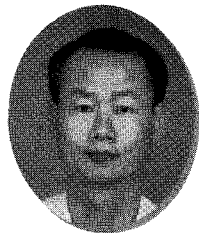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총무



유재성
(주)고려컨설팅 대표이사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총무

사단법인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이하 토기회)는 2003년 5월 6일자로 과학기술부 장관의 “법인설립인가증(인가번호 제289호)”을 발급받았으며 그해 5월 16일자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송파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현재 14대 임원진이 토기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안상로 회장을 비롯하여 새로운 운영진이 출마를 하면서 모임의 활성화와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사 수를 4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증원시켰고 1교육원 9개 위원회를 총 15개 위원회와 기술연구소, 지반재해방지센터로 조직을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자체 소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 12월 말일 현재 토질및기초기술사 배출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48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우리 기술사의 사명과 직무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회원들의 품위유지, 기술 및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 산업의 발달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회비 30만원, 년회비 10만원이고 종신회비는 별도로 100만원을 내야 하는 적지 않은 비용이므로 입회시 연회비 면제를 해주기도 하

고 분납도 가능하게 해서 작년의 경우 종신회원 19명, 정회원 22명의 가입 및 회비 납부실적을 거두었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무는 저를 포함하여 정규정(한국시설안전공단)/김학균(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간사 2인이며 해야 할 중요업무로는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년중 행사계획수립, 회의 운영 및 재정관리, 각종 행사시 참가비 수령 및 지출,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이든 총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 토기회의 경우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특성상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총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팎 살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원분들 모두가 1개월에 1-2회에 걸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시 전화와 이메일로만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의견의 취합 및 결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솔직히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에 한번씩 회장이 새로 선출되고 회장님과 함께 할 주요멤버가 교체되니 추진업무의 깊이와 연속성이 일정하지 못하고 각

자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의 고유 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서 토기회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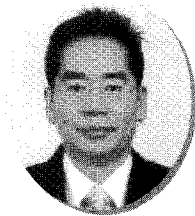
우리회의 총무 역할을 맡아 일한 지난 1년 3개월이 매우 길게만 느껴지고, 홀수 월에는 위원장회의 및 CPD 교육, 짝수 월에는 이사회가 항상 개최되고 봄 세미나 겸 정기총회, 가을기술발표회 겸 임시총회, 신년하례식 및 송년회 등이 쉬지 않고 열려서 회사업무를 보지 못하고 행사준비에 며칠씩 소비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안상호 회장님께서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근무하시고 계셔서 많은 발표회와 행사진행을 정확하게 준비시키고 추진하다보니 총무와 간사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신입 회장단의 업무과약 및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일자별, 행사별로 잘 기록해서 다음회장단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보니 늘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며 아쉬운 점도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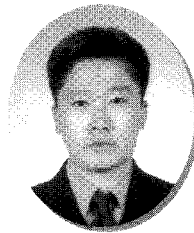
지만 금년에도 토기회가 날로 번창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발표와 심포지움 행사를 효과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회원에게 득이 되는 일을 많이 한다면 사랑하는 신입회원이 늘어나고 년 회비 뿐만 아니라 종신회비도 작년보다 더 많이 납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상 토기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적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토기회가 되고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교류의 장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총무를 비롯하여 간사, 사무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기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www.kape.or.kr, T 02-406-1707, F 02-408-1708, kape1981@nate.com)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 영남지회



이 명 건
(주)엠에스엔텍 대표이사



유 상 호
(주)길평 상무이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영남지회(이하 영남지회)는 부산, 경남지역의 토질 및 기초기술사 회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남지회는 2007년 1월 회원 18명으로 출발하여 1기 임원진으로 초대회장 고광진, 총무 김광호 회원을 선출하고 2008년까지 분기별로 총 8차례 모임을 개최하였고, 영남